

IUPAC Macromolecules Symposium Polymer 91 Melbourne을 참가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 정 업

대만화학연구소와 호주의 Wollongong대학을 방문하고 2월 10일 오후 1시 30분 Melbourne공항에 도착하였을때 "Polymer 91" 팻말을 들고 있는 안내원을 발견하고는 마음이 놓였다. 떠나기 전에 Melbourne 도착시간을 호주학회에 알려주긴 했어도 혹시나 안내원이 없으면 하던 생각이 기우였었다. 1996년에는 이 심포지움이 한국에서 개최될 것이 확정되었음으로 그때를 위해 이 모임을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다. 마이크로버스로 Melbourne시가지를 옆으로 지나가면서 약 45분 후에 Monash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하였다. 명찰을 포함해서 필요한 자료가 든 봉투를 받고 방을 배정받아 짐을 풀었다.

논문발표장을 둘러보기 위해 등록장소에 내려왔을 때 NMR workshop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약 30명이 강의를 듣고 있었으며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까지 강의시간이라고 한다. 다른 방에는 FT-IR과 열분석 workshop도 같이 행해지고 있었다. 기업체 연구원들이 학회에 참가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좋은 착상이라 느껴졌다. 발표장은 대학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다. 그 사이에는 연못과 크리켓 운동장, 정구장들이 잘 다듬어져 있었다. 발표장은 개회식을 하는 대강당과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계단강의실이 5개 준비가 되었고 poster 발표는 학생회관 2층에 마련되어 있었다.

2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 개회식은 경과보고와 정부 및 대학측의 환영사로 1시간 걸렸고, 3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5개의 발표장에서 11시 10분 부터 발표가 시작되었다. 논문수는 구두발표가 초청논문 43편을 포함해 233편이고 poster가 89편이

있으며 참가자는 예비등록자가 34개국 496명이었고 80명 정도가 현장에서 등록을 했다고 한다. 발표된 논문분야는 39개이며 논문편수가 많은 분야를 표 1에 나타내었고, 참가자를 국별로 분류하면 표 2와 같다.

걸프전쟁 때문이라고 해서 참가하지 않은 8명의 초청연사 때문에 주최측이 곤욕을 치루었을 텐데 일반발표자들로 부리없이 대체를 한 것은 인상적이었

표1. 분야별 논문편수

Thermal Performance	18	General	10
Liquid Crystals	14	Blends	8
Polymer Degradation	13	Biopolymers	8
Special Topics	13	Photo Physics and Chemistry	8
Emulsion Polymers	12	Specialty Polymers	8
Novel Polymer Synthesis	11	기타	100
Conducting Polymers	10	Poster	89
총계			322

표2. 국가별 참가자 수(총 496명)

호주	313	소련	4	스위스	2
미국	35	이스라엘	4	헝거리	1
일본	27	체코	4	이란	1
영국	17	알제리아	4	케냐	1
독일	14	중국	3	남아프리카	1
네덜란드	13	인도	3	스웨덴	1
한국	11	핀란드	3	브라질	1
캐나다	8	벨지움	2	그리스	1
이태리	7	불가리아	2	말레이시아	1
불란서	5	리비아	2	대만	1
뉴질랜드	5	싱가포르	2		

다.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에서 일부가 빠졌었다. 발표장에는 발표자에게 남은 시간이 몇분인지를 알려주는 액정시계가 준비되었고 5분 남았을 때 노란전구가 켜지고 시간이 다하면 빨간 불이 켜져 진행을 정확히 하였다. 발표진행은 많은 대학원생이 열심히 협조를 했다.

휴식시간에 음료수를 poster 회장에 준비해 놓고 poster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게 했다. 특히 인상이 좋았던 것은 오후 5시 30분에 논문발표가 끝나면 poster 회장으로 옮겨 poster를 읽는 동안 간단한 각테일이 준비되어 있었고 대학원생들이 음식을 들고 다니면서 권하는 것이었다. 점심과 저녁은 등록비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점심은 학생회관에 그리고 저녁은 기숙사 식당에 준비되었었다.

흥미를 가지고 들었던 session 중에는 화요일 오전 11시 10분 부터의 IUPAC seminar로서 5명의 원로 과학자들로 하여금 고분자개론, 고분자합성, 구조, 기능성고분자, 고분자재생에 관해 20분씩 발표하게

한 후 토의를 하게 했다. 또 다른 session은 수요일 오전 11시 10분에서 호주국내의 고분자에 관한 장래를 토론한 것으로 기업체, 대학, 정부 및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각각 1명이 참가하여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느낀 것을 간추려보면 발표장 확보가 발표회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초청강연이 13%나 되어 외국의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많이 참석을 했다. 외국발표자는 발표일을 첫 2일에 주로 배정하여 국제 학술발표회를 외국학자의 일시유치기회로 삼고 있었다. Poster session과 각테일파티를 겸한 것은 많은 사람이 대화를 서로 나눌 수 있게 해 주었다. 한국에서 11명이 참가하고 9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은 우리나라 고분자연구활동의 현황을 설명해 주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국제학술대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면 국내의 연구활동도 지금보다 더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글을 마친다.

